

셔츠와 넥타이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인상평가

임지영·강경자⁺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The Impression Evaluation for Tone Combination of Identical Hue of Shirt and Necktie

Ji-Young Lim · Kyung-Ja Kang⁺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Industry, Silla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6. 3. 7. 접수; 4. 1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various impressions that tone-on-tone coloration of shirts and ties gives. This experiment was based on the 2×4×4×2 factorial design: colors(red and blue), shirt tones(vivid, light, dull, and dark); tie tones(vivid, light, dull, and dark) and perceivers' gender(male and female).

The materials in the experiment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composed of 32 upper body photographs which were color printed and 27 bi-polar adjectives, each of which was graded into seven in its degree, were used to evaluate the impression. We unified those colors of shirts and neckties, and then made shirt and necktie tone different.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92 male and 192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including Jinju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Analyzing methods were one-way ANOVA and LSD test.

The items of the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5 impression dimensions - potency, activity, attractive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All the image by the match of shirt and tie could be possible to make various images by the color, the shirt tone and the tie tone. Blue was given more effective potent image, vivid or light tone shirt in blue was the active image. As shirt and tie had different tone, regarded as the attractive image. Vivid tone tie was evaluated the visible image, light tone shirt is the tend image.

Key Words: Impression evaluation(인상평가), Tone-on-tone coloration(톤 온 톤 배색), Shirt(셔츠), Tie(타이)

⁺Corresponding author ; Kyung-Ja Kang

Tel. +82-11-9594-1283, Fax. +82-55-753-9030

E-mail : kjkang@gsnu.ac.kr

I. 서론

남성 의복이 캐주얼화, 다양화 되면서 액세서리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의복 및 액세서리 착용은 첫인상에 착용자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¹⁾. 액세서리로서 넥타이의 원형이 완성된 1600년대 중반 이후 실용적인 면만을 따지면 뚜렷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것은 넥타이가 가지는 심미적인 가치 때문일 것이다.

남성복에 있어 넥타이는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므로 착용자의 태도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강조하여 넥타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시각적 인상을 강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넥타이와 의복은 모두 색을 가지고 인접해 있어서 이들 색이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관련 되어서 통합되어 지각 된다²⁻⁵⁾.

게다가 남성의 비즈니스 슈트는 검정, 회색, 청색, 갈색이 가장 보편적인 색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슈트를 더욱 다양하고 세련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또한 재킷을 벗고 있는 경우 셔츠와 타이의 코디가 착용자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서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주로 셔츠와 타이의 코디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의복의 형태보다 색채가 더 중요하며⁶⁾,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의 내포적 힘이 강해지고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인상은 단색에서 주는 인상보다 감정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⁷⁾. 의복의 색채는 톤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고⁸⁾, 톤의 조합에 따라서도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의 조합일 때 품위있는 것으로⁹⁾, 매력성 차원에서는 색상이, 주의집중성, 온유성 차원에서는 톤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한다¹⁰⁾고 하였다. 이러한 색채를 통한 감성제품 개

발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¹¹⁾.

남성복의 인상에 관한 연구들¹²⁻¹⁶⁾을 보면 의복색과 의복유형, 넥타이색과 무늬, 착용자나 관찰자 연령, 상황 등과 같은 단서들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바 있으나 색상과 톤에 의한 다양한 배색방법에 따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남성복은 여성복 못지않게 이미 대담하고 다양한 컬러가 선보이고 있어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남성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 성향은 다양한 색상배합을 시도하기 보다는 색상배합이 비교적 용이하고 무난하면서도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톤 사용에 있어서도 강한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성복의 셔츠와 타이를 배색함에 있어 색상을 동일하게 하고 톤을 달리한 셔츠톤과 타이톤의 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평가를 규명함으로써 디자인이 단순한 남성복 시장에 객관적인 감성자료를 제시하고 색채기획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색상에 따른 느낌의 차이에서 가장 강하고 공통적인 것은 온도감으로 난색과 한색은 색상환에서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은 난색으로 초록, 파랑, 남색은 한색으로 구분된다¹³⁾. 한난색의 심리적 효과를 보면 빨강은 화려하고 자극성이 강하여 흥분과 긴장감을 주고 파랑은 넓고 크고 시원하며 이지적인 느낌을 준다¹⁴⁾.

패션에 사용된 빨강의 색채 이미지는 건강한, 정열적인, 대담한, 섹시한, 위험한 이미지이고, 파랑은 보수적인, 캐주얼한, 활동적인, 남성적인, 산뜻한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빨강이 현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색계 색채가 진출성, 화려함으로 현시성이 높은 반면 한색계

는 후퇴, 진정의 효과로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또한 빨강 한복착용자는 멋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남색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있고 능력있는 이미지를 주며²²⁾, 빨강색 의복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띄며, 파란색 의복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²³⁾.

남성복에서도 색상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복의 인상차원은 활동성, 매력성, 평가성, 능력성, 현시성, 품위성, 남성성 등이 도출되었다. 최유진, 이명희²⁴⁾는 파란색 셔츠와 남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된다고 하였고, 김현지²⁵⁾는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 중 감색 재킷이 회색과 검정 재킷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셔츠는 흰색이 파랑보다 친근한 평가를 받으며, 넥타이는 감색은 친근하고 빨강색은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이항미, 김재숙²⁶⁾은 감색 의복이 평가적 차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적벽돌색 의복은 사교적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강경자, 임지영²⁷⁾은 매력있는 이미지 형성에는 감색 양복에 유사색 넥타이를, 베이지색 양복에는 대비색의 넥타이가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이미지 형성에는 감색 양복에 유사한 배색의 체크, 페이즐리, 줄무늬의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독특한 이미지형성에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의 추상무늬나 꽃무늬 넥타이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은미, 강혜원²⁸⁾은 착용자 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감색 착용자보다 더 보기 좋고 세련되고 능력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럽고 덜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된다고 하였으며, 또 중년착용자의 넥타이색에 대하여 2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40·5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대비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Molloy²⁹⁾는 넥타이색은 슈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였다.

패션디자인의 색채조합 특성은 통일의 요소로는 색상을, 변화의 요소로는 톤을 많이 사용하는데³⁰⁾, 의복에 사용된 은은한 톤은 부드러운 것으로, 밝은 톤은 가볍고 명랑한 것으로, 선명한 톤은 강렬한 것으로, 어두운 톤은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³¹⁾. 패션소재를 구성하는 색채와 재질 변인에 의한 이미지는 우아한, 편안한, 개성적인, 가벼운, 단순함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색상과 톤은 모두 패션소재의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개성적인 이미지에서는 색상보다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의복유형 및 디자인에 따른 색상과 톤에 따른 인상차원은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능력성으로 나타났으며^{33),34)}, 의복의 톤조합과 체형에 따른 인상차원은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으로 도출되었으며 톤조합이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일 때 품위있는 것으로, 모든 체형에서 다크/다크의 조합은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인상을, 라이트/미디움과 미디움/라이트는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또한 톤 온 톤 배색에 의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차원은 젊음·활동성,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빨강색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는 현시성과 온유성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톤 온 톤 배색은 대체로 젊음·활동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다크톤 빨강 치마와 라이트 저고리 배색은 매력적인 이미지로, 비비드, 덜, 다크톤 치마는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것으로, 덜톤 치마와 라이트톤 배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³⁶⁾.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난색과 한색은 색상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가 의복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색이 가지는 톤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나 착용자의 인상은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변형이 거의 없는 남성복에서 색상이나 톤을 다르게 조합한 다양한 배색 방법에 따른 인상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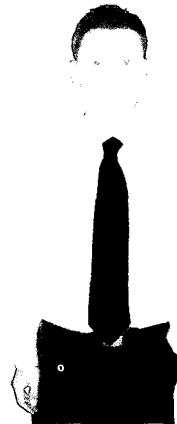
자극물은 셔츠와 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의 상반신 사진으로 하였다. 자극물의 모델은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기본체형인 키 171cm, 가슴둘레 91cm를 기준³⁷⁾으로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로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수정하였으며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자극물의 색상은 한난색을 중심으로 빨강과 파랑을 선정하고 이들 색을 셔츠와 타이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실용한국표준색표집³⁸⁾에 근거하여 이들 색상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상이 각각 비비드(v), 라이트(lt), 덜(d), 다크(dk)의 4가지톤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1>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선정된 톤을 와이셔츠와 넥타이에 차이 나도록 조합한 자극물 32개(2색×4톤×4톤)가 최종적으로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2>와 같으며, 제시된 자극물은 <그림1>과 같다.

의미미분척도는 남성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

39)42)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을 참고로 39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2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었다.

<표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색상	타이톤 셔츠톤	비비드 (v)	라이트 (lt)	덜 (d)	다크 (dk)
빨강 (R)	비비드 (v)	R: v-v	R: v-lt	R: v-d	R: v-dk
	라이트 (lt)	R: lt-v	R: lt-lt	R: lt-d	R: lt-dk
	덜 (d)	R: d-v	R: d-lt	R: d-d	R: d-dk
	다크 (dk)	R: dk-v	R: dk-lt	R: dk-d	R: dk-dk
파랑 (B)	비비드 (v)	B: v-v	B: v-lt	B: v-d	B: v-dk
	라이트 (lt)	B: lt-v	B: lt-lt	B: lt-d	B: lt-dk
	덜 (d)	B: d-v	B: d-lt	B: d-d	B: d-dk
	다크 (dk)	B: dk-v	B: dk-lt	B: dk-d	B: dk-dk



<그림1> 자극물

<표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톤	비비드 (v)	라이트 (lt)	덜 (d)	다크 (dk)
빨강 (red)		5R 4/14	5R 8/6	5R 5/6	5R 2/6
파랑 (blue)		5B 5/10	5B 8/4	5B 6/4	5B 2/4

실험설계는 32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는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다르게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 남녀 대학생 각 192명씩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5월~9월에 이루어졌다.

4가지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석을 하였고 보조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으며 각 인상차원별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계수를 산출하였다. 색상과 셔츠톤, 타이톤에 따른 각 인상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최소유의차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셔츠·타이의 색상과 톤에 따른 인상차원의 구조분석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7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이상으로 하여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개 요인으로 묶이었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도출된 인상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능력성 요인 .92, 활동성 요인 .90, 매력성 요인 .91, 현시성 요인 .75, 온유성 요인 .62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성실한-성

실하지않은, 예의있는-예의없는, 겸손한-자만심이강한, 안정된-불안정한, 고상한-야한, 자체력있는-충동적인, 집잡은-집잡치않은, 이성적인-감성적인의 9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능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1.0%로 5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능력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강경자, 임지영⁴³⁾의 넥타이색과 무늬에서 도출된 인상 중 능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활동적인-비활동적인, 활력을주는-가라앉게 하는, 즐거운-우울한,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개방적인-보수적인, 개성적인-개성없는, 산뜻한-칙칙한의 8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8.81%였다. 이는 의복유형, 의복형태, 색상을 의복단서로 사용한 남미우, 강혜원⁴⁴⁾의 활동성 요인, 최유진, 이명희⁴⁵⁾의 남성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에서의 활동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세련된-촌스러운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3.85%였다. 이는 이주현, 조궁호⁴⁶⁾의 평가·매력성 요인, 김윤경, 강경자⁴⁷⁾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4는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소심한, 눈에 띄는-무난한의 3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92%였다. 이는 강경자, 임지영⁴⁸⁾의 독특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2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66%였다. 이는 이은미, 강혜원⁴⁹⁾의 정장색, 정장스타일, 넥타이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 요인, 이명희⁵⁰⁾의 화친 요인과 비슷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성 요인에

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 있고 겸손하고 안정되고 고상한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 보이는 것으로, 매력성 요인에서는 멋있고 감각 있고 매력 있는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

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2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능력성과 활동성, 매력성은 공통변량의 79.8%를 나타내어 동일색상의 톤 배색 즉 색상과 톤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에서 이 세 요인은 중요한 차원임을

<표3> 셔츠와 타이의 동일색상 톤조합에 의한 인상차원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2)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861	-.052	.170	.003	.020	.774
성실한-성실하지않은	.847	-.002	.149	-.025	.037	.742
예의있는-예의없는	.831	-.031	.104	-.149	.107	.736
겸손한-자만심이강한	.736	-.063	.064	-.245	.165	.638
안정된-불안정한	.723	-.070	.214	-.129	.143	.610
고상한-아한	.685	-.284	.106	-.207	-.012	.603
자제력있는-충동적인	.661	-.179	.274	-.223	-.016	.594
점잖은-점잖지않은	.644	-.286	.307	-.265	.095	.670
이성적인-감성적인	.592	-.005	.217	-.062	-.224	.452
활동적인-비활동적인	-.142	.791	.080	.213	.065	.702
활력을주는-가리얏게하는	-.091	.772	.118	.171	.124	.663
즐거움-우울한	-.023	.763	.144	.027	.202	.645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056	.738	.316	.021	-.088	.656
사교적인-비사교적인	-.049	.715	.175	.118	.159	.583
개방적인-보수적인	-.269	.711	.117	.237	-.022	.648
개성적인-개성없는	-.250	.652	.032	.363	-.097	.630
산뜻한-칙칙한	.045	.634	.383	-.056	.165	.580
멋있는-멋없는	.280	.103	.806	-.003	.103	.748
감각있는-감각없는	.197	.253	.804	.074	.125	.770
매력있는-매력없는	.226	.254	.762	.130	.092	.721
보기좋은-보기싫은	.352	.217	.760	-.118	.152	.785
세련된-촌스러운	.238	.384	.739	.014	-.001	.750
강렬한-은은한	-.263	.121	.028	.779	-.070	.696
대담한-소심한	-.165	.270	.079	.719	.112	.636
눈에띄는-무난한	-.370	.362	-.036	.627	-.080	.668
따뜻한-차가운	.040	.092	.169	.090	.853	.775
부드러운-딱딱한	.172	.342	.181	-.175	.683	.676
고유치	5.669	5.078	3.740	2.138	1.527	18.152
전체 변량의 %	20.997	18.806	13.853	7.919	5.656	67.231
공통 변량의 %	31.231	27.972	20.605	11.779	8.413	100.0

알 수 있다.

2. 셔츠·타이의 색상과 톤에 따른 인상 차이

셔츠와 타이의 색상 및 셔츠톤, 타이톤의 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에 대해 남녀 지각자의 시각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일원 변량분석과 최소유의차검증을 실시하였다.

1) 색상이 빨강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평가

색상이 빨강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은 <표4> - <표7>에 나타내었다.

빨강색 셔츠의 톤이 비비드(v)일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4>에서 보면 남녀 모두 5가지 차원에서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 lt, dk 타이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능력성차원에서는 lt, d, dk 타이와 배색하면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책임감 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예의 없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v 타이와 배색하면 남자는 능력 있는 이미지로, 여자는 반대로 지각하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v 셔츠와 lt 타이의 조합을 남녀 모두 활동적이고 젊어 보이고 사교적이고 개성 있고 산뜻한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평가를 하였으나 dk 타이와 배색하면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v 셔츠에 v나 d 타이와의 조합을 남녀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지각하여 감각 있고 멋있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고, 현시성 차원에서도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넓은 면적의 선명한 빨강색으로 인해 타이보다는 셔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빨강은 현시성이 높아 빨강색 의복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난 차미승⁵¹⁾, 이주현, 강혜원⁵²⁾의 연구와 의복색상이 선명한 톤이 강렬한 것으로 나타난 주소현, 이경희⁵³⁾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한복 치마저고리의 톤 온 톤 배색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v 치마는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여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선명한 빨강색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 어떠한 톤이 배색되어도 현시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대체로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하여 난색이라는 색상의 온도감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빨강 lt 타이와의 배색을 여자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온유한 이미지 평가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빨강색 셔츠톤이 라이트(lt)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5>에서 각

<표4> 셔츠가 비비드(v) 빨강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61	.07	-2.30*	-.60	-.56	-.16	-.75	-.72	-.13	-.58	-.58	-.00	.221	2.128
활동성	.18	-.39	1.55	.61	.37	.77	.44	-.12	1.84	.22	-.32	2.35*	1.451	1.698
매력성	.17	.01	.42	-.63	-.09	-1.62	.11	.16	-.15	-.06	.26	-1.13	2.241	.603
현시성	.94	.70	.82	.63	.75	-.53	.56	.73	-.51	.82	.83	-.02	1.171	.054
온유성	.41	1.02	-1.75	-.12	.47	-2.30*	.73	.54	.53	.34	.69	-1.10	2.188	.934

* P<.05

요인별로 살펴보면 매력성과 현시성차원에서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온유성차원에서는 남자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능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lt 셔츠에 lt나 dk 타이를 착용하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 있고 점잖은 이미지로, v나 d 타이와 배색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남녀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v나 d의 타이와 배색하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dk 타이와 배색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성 이미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어 여자는 빨강 lt 셔츠에 v, d, dk의 타이를 배색하면 멋있고 감각 있고 매력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lt 타이와의 배색은 멋없고 감각 없고 촌스러운 인상으로 평가하였고, 남자는 lt나 dk 타이와 배색하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빨강 lt 셔츠와 dk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매력 있는 인상으로, 남자는 매력 없는 인상으로 평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v 타이를 제외한 dk, d, lt 타이와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셔츠톤이 현시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타이톤이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

<표5> 셔츠가 라이트(lt) 빨강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29	-.46	.41	.40	.00	1.12	-.08	-.11	.08	.17	.33	-.47	1.820	1.173
활동성	.47	.12	1.03	.07	-.41	1.27	.32	.01	1.11	-.29	-.42	.35	2.187	1.089
매력성	.22	.18	.14	-.64	-.86	.55	.23	.21	.08	.42	-.46	2.45*	4.719**	5.872**
	a	a		b	b		a	a		a	b			
현시성	.47	.49	-.05	-.1.14	-.18	-2.24*	-.95	-.64	-.73	-.44	-.84	.89	9.884***	3.088*
	a	a		c	ab		bc	b		b	b			
온유성	.60	-.24	2.03	.85	1.58	-1.50	1.08	.53	1.50	.74	.83	-.26	.584	5.218**
		c			a			bc			ab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 P < .001

<표6> 셔츠가 덜(d) 빨강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27	-.44	.54	-.09	-.25	.59	-.51	-.28	-.54	.29	-.43	1.54	1.485	.139
활동성	.60	.04	1.56	.30	-.01	1.19	-.19	-.69	1.30	-.22	-.27	.11	2.933*	1.457
	a			ab			b			b				
매력성	-.11	-.26	.51	.42	.10	.68	-.18	.08	-.71	.64	.51	.33	2.162	1.301
현시성	.59	.62	-.10	.02	-.12	.50	.46	.43	.09	-.31	-.16	-.48	3.869*	2.648
	a			bc			ab			c				
온유성	.42	.28	.49	1.05	.54	1.64	.66	.38	.91	.72	.60	.27	.950	.474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표7> 셔츠가 다크(dk) 빨강인 경우 타이론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38	-.50	2.23*	.26	-.38	1.73	.15	-.26	1.10	.39	-.21	1.67	.177	.234
활동성	-.31	-.92	1.64	-.46	-.62	.34	-.38	-1.12	2.05	-1.44	-.72	-2.24*	2.801	.659
매력성	-.01	.36	-1.07	.33	.93	-1.68	.45	1.22	-2.34*	-.28	.52	-2.02	1.709	2.270
현시성	.89 a	.57	1.07	.38 ab	.44	-.22	-.06 b	-.10	.12	-.14 b	.33	-.92	4.316**	1.198
온유성	.10	.31	-.69	.05	.54	-.84	-.03	.14	-.33	.50	.21	.83	.498	.246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었다. 특히 셔츠와 동일한 빨강 lt 타이와의 배색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현시적인 인상평가에서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셔츠가 빨강 lt일 경우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가 대체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셔츠와 동일한 lt 타이와 배색할 때 가장 높게, v 타이와 배색할 때는 반대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빨강색 셔츠톤이 덜(d)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6>에서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능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의 d 셔츠에는 어떤 톤의 타이를 착용하여도 대체로 능력없는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여자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d의 빨강 셔츠에 v나 lt 타이 착용자를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거운 인상으로 지각한 반면 d, dk 타이를 착용하면 우울하고 나이들어 보이고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d 셔츠에 밝은 lt나 어두운 dk의 타이와 조합할 때 남녀 모두 매력성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매력 있고 보기 좋고 세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빨강 d 셔츠와 v 타이의 조합은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멋없고 매력 없고 촌스러운 것으로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빨강 d 셔츠를 v나 d 타이와 배색하면 남녀 모두 강렬

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고 또 dk 타이와 배색하면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⁵⁴⁾에서 치마가 빨강 d일 때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의복유형이 다르고, 상하의 배색이 아닌 상의 내에서 배색되는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 된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빨강 d 셔츠는 타이의 톤 변화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dk 타이와의 배색이 가장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이 빨강이고 셔츠가 다크(dk)인 경우 4가지 타이의 톤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7>에서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능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dk 셔츠에는 어떤 톤의 타이를 착용하여도 여자는 능력 있는 것으로, 남자는 능력 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성별로 일관된 평가를 하였다. 특히 빨강 dk 셔츠에 v 타이를 조합했을 때는 남녀가 현저하게 상반된 반응을 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타이톤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평가를 하였다. 특히 빨강색 dk 셔츠와 dk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dk의 셔츠와 lt나 d 타이와 조합하면 남녀 모두 매력적인 인

상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빨강 dk 셔츠와 d 타이의 조합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빨강 dk 셔츠에 v, lt 타이를 조합할 경우 남녀 모두 강렬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 d 타이와 조합될 때는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이는 셔츠톤 뿐만 아니라 타이톤도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떤 톤의 넥타이와 배색되느냐에 따라 현시적인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v나 lt와는 반대로 d이나 dk 타이와 배색될 때는 은은하고 무난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빨강 dk 치마는 저고리톤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⁵⁵⁾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저고리와 치마, 셔츠와 타이라는 의복유형의 차이와 상의 내에서의 배색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 된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dk 빨강 셔츠와 4가지 톤 타이와 배색될 때 대체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2) 색상이 파랑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평가

색상이 파랑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은 <표8> - <표11>에 나타내었다.

파랑색 셔츠톤이 비비드(v)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8>에서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5가지 인상차원에서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능력성, 매력성, 현시성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능력성 차원을 보면 남녀 모두 파랑 v 셔츠와 dk 타이의 배색을 책임감 있고 점잖고 예의 있고 이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고 v나 lt 타이와의 배색은 반대로 책임감 없고 성실하지 않고 예의 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파랑색 의복 착용자가 능력 있는 인상을 준다는 선행연구⁵⁶⁾와 비교하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상·하 파랑 즉 단색이 주는 인상보다 배색되는 타이의 톤에 따라 능력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차원에서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 보이고 산뜻하고 개성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여 파랑색 의복 착용자는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⁵⁷⁾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색채이미지와 함께 넓은 면적의 셔츠톤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여자의 경우는 v 파랑 셔츠에 어떠한 톤의 타이를 착용하여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남자의 경우는 파랑색 v 셔츠를 dk나 d, lt 타이로 조합하면 멋 있고 감각 있고 매력적이나 동일한 v 타이와 조합되면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표8> 셔츠가 비비드(v) 파랑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24	-.68 b	1.37	-.39	-.80 b	1.68	.36	-.04 ab	.98	.33	.26 a	.17	2.390	3.359*
활동성	.55	.24	.69	.87	.17	1.76	.97	.56	1.22	.77	.50	.74	.566	.362
매력성	-.90	-.48 b	-1.10	-.23	.07 ab	-.80	-.04	.39 a	-1.18	-.11	.69 a	-1.91	1.822	3.661*
현시성	.47	-.10 ab	1.80	.09	-.33 b	.91	-.16	-.68 b	1.24	.06	.66 a	-1.38	.874	3.169*
온유성	-.30	-.68	.80	-.64	-.51	-.31	-.88	-.04	-2.35*	-.46	-.43	-.07	.911	.741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표9> 서츠가 라이트(It) 파랑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I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95 a	.37 a	2.07	-.05 b	-.65 b	1.66	.79 a	.42 a	.96	.60 a	.83 a	-.65	3.773*	5.477**
활동성	.59	.58	.03	.80	.45	.78	.35	.23	.37	.06	.27	-.79	2.128	.393
매력성	.65 a	.33	1.12	-.36 b	.04	-.83	.69 a	.82	-.55	.52 a	.31	.67	4.011*	1.631
현시성	-.60	-.62	.04	-.48	-1.20	1.98	-1.03	-.55	-1.12	-.89	-1.03	.56	.976	1.319
온유성	.02 a	-.31	.83	.13 a	-.32	1.41	.25 a	.29	-.09	-.70 b	.48	-3.95**	4.067*	2.215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파랑 서츠의 톤이 v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남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파랑 서츠의 톤이 v일 때 타이가 v나 It 또는 d이면 남자들은 은은하고 소심하고 무난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나 dk 타이와의 배색만이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파랑 v 서츠와 4가지 톤 타이와의 배색에서 타이톤에 관계없이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색상이 주는 온도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는 파랑색 v 서츠와 d 타이의 배색을 남자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 서츠의 톤이 라이트(It)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 9>에서 요인별로 보면 능력성 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매력성, 온유성 요인에서는 여자가, 현시성 차원에서는 남자가 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능력성 차원에서 v나 d, dk 타이와 배색하면 남녀 모두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서츠와 동일한 It 타이와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It 파랑 서츠에는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v 파랑 서츠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파랑색 의복 착용자는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⁵⁸⁾의 결

과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의복에 사용된 밝은 톤은 가볍고 명랑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매력성 차원에서 여자는 It 서츠와 v나 d, dk 타이의 배색을 매력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서츠톤과 동일한 톤의 It 타이를 배색하면 멋없고 감각 없고 매력 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는 파랑 It 서츠에는 4가지 톤의 어떤 타이를 조합해도 매력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파랑 It 서츠와 4가지 타이와의 배색에서는 타이의 톤 변화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은은하고 소심하고 무난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파랑 It 서츠에 d 타이를 착용하면 남녀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한 반면 dk 타이를 착용하면 여자는 부정적, 남자는 긍정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 서츠톤이 덜(d)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요인별로 <표10>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5가지 인상차원에서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매력성 차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능력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d 서츠를 It 타이와 배색하면 부정적으로, v, d, dk 타이와 배색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 있고 자제력 있고 이성적인 것으로

〈표10〉 셔츠가 뎀(d) 파랑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10	.12	-.08	-.04	-.60	1.31	.35	.54	-.41	.80	.19	1.44	2.310	2.432
활동성	-.24	.04	-.97	.09	-.59	1.45	-.30	-.09	-.48	.27	-.38	1.40	.962	.936
매력성	-.09 a	.15	-.79	.36 a	.23	.25	-.98 b	.37	-3.07**	.46 a	.60	-.43	5.566**	.512
현시성	.18	.08	.26	.31	.45	-.36	-.19	.25	-.97	.33	-.02	.76	.631	.532
온유성	-.93	-.96	.13	-.60	-1.00	1.21	-.68	-.57	-.33	-.80	-1.02	.59	.352	.868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1

평가하였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파랑색의 d 셔츠를 셔츠톤과 동일한 d 타이와 배색하면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매력성 차원에서 여자의 경우는 d 파랑 셔츠를 lt나 dk 타이와 배색할 때는 매력적인 것으로, v나 d 타이와 배색할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셔츠톤과 동일한 d 타이와의 배색은 아주 매력 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는 d 셔츠에는 어떤 톤의 타이를 착용하여도 멋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d-d 배색에서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d 셔츠에 v나 lt 타이를 착용하면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파랑색 d 셔츠는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는 v 파랑 셔츠에서와 마찬가지로 색상이 주는 온도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랑색 셔츠톤이 다크(dk)인 경우 4가지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 차이를 <표11>에서 보면 5가지 인상차원에서 여자가 매력성 차원에서, 남자는 활동성, 매력성 차원에서 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능력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타이톤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공통된 평가를 하여 파랑색의 dk 셔츠는 대체로 능력 있는 인상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여자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한데 반해 남자는 dk 셔츠와 v나 lt 타이와의 배색을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개성 있는 것으로, d이나 dk 타이의 착용자는 우울하고 개성 없고 칙칙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셔츠와 동일한 dk 타이의 배색은 가장 비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자는 파랑색 셔츠가 dk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비활동적이고 우울하고 칙칙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d 파랑 셔츠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색이 파랑이라 해도 톤에 따라 그 착용자의 활동적이고 개성적인 인상이 다르게 평가되어 색상과 톤은 패션소재의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개성적인 이미지에서는 색상보다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추선형, 김영인³⁹⁾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dk 셔츠를 v, lt, d 타이와 조합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멋있고, 감각 있고 매력 있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 셔츠와 동일한 톤인 dk 타이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 모두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녀 모두 dk 셔츠와 v 타이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셔츠톤과 동일한 dk 타이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공통된 평가를 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표11> 셔츠가 다크(dk) 파란인 경우 타이톤별 인상 차이

	v			lt			d			d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69	.27	1.15	.59	.62	-.07	1.02	.78	.64	.75	.45	.74	.363	.801
활동성	-.36	.09	-1.01	-.35	.00	-.82	-.34	-.16	-.47	-1.19	-.98	-.55	1.514	4.483**
매력성	.71	.77	-.17	.72	.75	-.10	1.09	.52	1.96	-.31	-.03	-.76	5.226**	3.095*
현시성	.30	.13	.46	.04	-.34	1.05	-.14	.05	-.49	-.13	-.09	-.09	.715	.438
온유성	-.38	-.67	.80	-.38	-.61	.53	-.86	-.58	-.83	-.76	-.49	-.68	.725	.097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파랑색 dk 셔츠와 4가지 타이톤과의 배색에서는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는 파랑색 v, d 셔츠일 때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일한 톤인 빨강색 dk 셔츠가 온유성이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평가를 하여 셔츠톤이나 타이톤에 상관없이 색상이 온유성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셔츠와 타이의 색상을 한난색을 기준으로 빨강과 파랑색으로 통제하고 이들 색상을 셔츠와 타이에 각각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셔츠·타이의 색상, 셔츠톤, 타이톤에 따른 남성복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7쌍의 형용사 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셔츠와 넥타이의 톤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셔츠·타이 색상, 셔츠톤, 타이톤에 의한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분석한 결과 능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5가지 인상차원에 따라 셔츠와 타이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보면 능력

성 차원에서 셔츠와 타이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보면 빨강색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이 lt-lt이거나 lt-dk이면 남녀 모두 능력 있는 인상으로 평가한 반면 lt-v, lt-d이거나 d-v, d-lt, d-d이면 남녀 모두 능력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상평가에 남녀 차이를 보인 배색은 v-v일 때 여자는 부정,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dk-v일 때 여자는 긍정,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의 셔츠와 타이의 톤 조합에서는 셔츠가 v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녀에게 능력 있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dk의 셔츠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능력 있는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이 v-v/lt, lt-lt, d-lt이면 남녀 모두 능력 없는 인상으로 평가하여 파랑 동색의 셔츠와 타이를 배색할 경우 lt와 같은 얼은 톤의 타이는 능력 있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셔츠와 타이의 톤 조합이 v-lt, lt-v, lt-d, d-v이면 남녀 모두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 한 반면 lt-dk, d-d, d-dk, dk-v, dk-lt, dk-d, dk-dk이면 남녀 모두 비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인상평가에 남녀 차이를 보인 배색은 v-dk일 때 여자는 활동적인 이미지에 긍정,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dk-dk일

때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특히 여자가 더 비활동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인 경우는 남녀 모두 v셔츠나 lt셔츠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여 파랑 색상에서 오는 활동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밝은 셔츠톤이 착용자의 활동적인 인상을 강조하였으나 파랑색 셔츠와 타이틀 d-d, dk-d/dk의 톤 배색으로 착용한 경우 남녀 모두 비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셔츠색이 동일한 파랑색이지만 톤에 따라 활동적인 이미지가 감소되어 의복착용자의 인상평가에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셔츠와 타이의 톤 조합이 v-v, v-d, lt-v, lt-d, d-lt, d-dk, dk-lt, dk-d 일 때 남녀 모두 매력적인 인상으로 평가한 반면 v-lt, lt-lt, d-v이면 남녀 모두 매력적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인상평가에 남녀 차이를 보인 배색은 lt-dk일 때 여자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셔츠와 타이가 dk-d일 때는 남녀 모두 매력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나 특히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 셔츠와 타이의 경우 톤 조합이 lt-v, lt-d, lt-dk, d-lt, d-dk, dk-v, dk-lt, dk-d일 때 남녀 모두 매력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여 대체로 셔츠톤보다 열거나 진한 톤의 타이와의 배색이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톤 조합인 v-v, dk-dk일 경우 남녀 모두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d-d 톤 조합에서 여자는 매력없는 인상으로, 남자는 매력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빨강 셔츠와 타이의 톤 조합에서 셔츠톤이 v일 경우는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현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이 lt-v이거나 d-v, d-d, dk-v, dk-lt이면 남녀 모두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셔츠와 타이가 d-dk이거나 dk-d이면 남녀 모두 현시성에 부정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인상평가에 남녀 차이를 보인 배색은 셔츠와 타이의 배색이 lt-lt일 때 남녀 모

두가 은은하고 소심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나 특히 여자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 셔츠와 타이의 경우 톤 조합이 v-dk, d-v, d-lt, dk-v일 경우 남녀 모두 강렬하거나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톤 조합이 v-d이거나 dk-dk일 때 또는 셔츠톤이 lt이면 타이톤에 관계없이 은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시성 인상차원은 색상뿐만 아니라 의복의 톤과도 관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빨강색의 셔츠와 타이의 톤 조합에 따른 인상은 빨강색의 온도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온유성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셔츠와 타이가 d-lt의 톤 조합일 때는 여자는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으로, 남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상반되게 지각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파랑색의 톤 조합 중에서 남녀 모두가 온유성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배색은 lt-d 배색뿐이었으며 v나 d, dk 셔츠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즉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평가하여 한색인 파랑이 셔츠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난색인 빨강의 온도감과는 반대로 차가운 이미지가 착용자의 인상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와이셔츠의 색상과 톤의 조합에 따라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가지 차원의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상은 셔츠와 타이의 색상과 톤이 어떻게 배색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색상은 물론 명도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셔츠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넥타이톤에 따라 이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셔츠에 비하면 넥타이의 면적이 적지만 인상형성에 중요한 정보가 되고 또한 이들 정보는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됨으로서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색상과 톤, 타이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간에 타이틀 보이는 배색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지 지각에 지각자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성화를 추구하는 남성복 시장에 객관적인 감성자료를 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패션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출을 통한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가 감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을 개발 하는데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배색방법과 색상 및 무늬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강의실에서 이루어져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敎文社, pp.197-198.
- 2)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 Y. Warner Book Inc.
- 3) Hix, C. (1978). *Dressing Right, A Guide For Men*. N. Y. Crown Publishers.
- 4) Furstenberg, E. V. (1978). *The Power Look*. N. Y. Fawcett Columbine.
- 5) Jackson, C. (1984). *Color of Men*. N. Y. Ballantine Books.
- 6) 上野清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21(7).
- 7) 추선행, 김영인 (2002). 패션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pp.193-204.
- 8)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색채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6, p.29.
- 9)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395-406.
- 10)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pp.459-473.
- 11) 오희선 (2002). 남성복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평가와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1), pp.47-55.
- 12)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197-210.
- 13)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항,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311-326.
- 14)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 15)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369-378.
- 16)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pp.131-140.
- 17) 권혜숙, 심은하 (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139-152.
- 18) 이은영 (1996).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165.
- 19)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3).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p.81-82.
- 20) 추선행, 김영인 (2002). Op. cit., pp.193-204.
- 21)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혜숙, 김재숙 (1996). 의복 디자인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색, 무늬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복식문화연구* 4(3), pp.349-359.
- 23)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24) 최유진, 이명희 (2004). Op. cit., pp.131-140.
- 25) 김현지 (2003).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

- 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 27) 강경자, 임지영 (1996). Op. cit., pp.312-320.
- 28) 이은미, 강혜원 (1994). Op. cit., pp.197-210.
- 29) Molloy, J. T. (1978). Op. cit.
- 30)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1.
- 31) 주소현, 이경희 (2002). Op. cit., p.29.
- 32) 추선형, 김영인 (2002). Op. cit., pp.193-204.
- 33) 김윤경, 강경자 (2003). Op. cit., pp.395-406.
- 34) 최수경, 강경자 (2003). Op. cit., pp.459-473.
- 35) 팽숙경, 강경자 (2004).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평가(제1보).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pp.1007-1021.
- 36)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 (2005). 치마·저고리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pp.39-50.
- 37) 사이즈코리아 (1997). 국민표준체위조사. from <http://sizekorea.ats.go.kr/>
- 38) 실용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 39) 이은미, 강혜원 (1994). Op. cit., pp.197-210.
- 40) 남미우, 강혜원 (1994). Op. cit., pp.311-326.
- 41) 강경자, 임지영 (1996). Op. cit., pp.312-320.
- 42) 이향미, 김재숙 (1998). Op. cit., pp.312-320.
- 43) 강경자, 임지영 (1996). Op. cit., pp.312-320.
- 44) 남미우, 강혜원 (1996). Op. cit., pp.311-326.
- 45) 최유진, 이명희 (2004). Op. cit., pp.131-140.
- 46) 이주현, 조공호 (1995). Op. cit., pp.747-764.
- 47) 김윤경, 강경자 (1995). Op. cit., pp.395-406.
- 48) 이명희 (2002).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503-514.
- 49) 이은미, 강혜원 (1996). Op. cit., pp.197-210.
- 50) 이명희 (2002). Op. cit., pp.503-514.
- 51) 차미승 (2002). Op. cit.
- 52) 이주현, 강혜원 (1995). 의복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Dress 및 Pants, Blous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84-994.
- 53) 주소현, 이경희 (2002). Op. cit., p.29.
- 54)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 (2005). Op. cit., pp.39-50.
- 55) Ibid.
- 56) 이은미, 강혜원 (1994). Op. cit., pp.197-210.
- 57) 이주현, 조공호 (1995). Op. cit., pp.747-764.
- 58) Ibid.
- 59) 추선형, 김영인 (2002). Op. cit., pp.193-204.